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3년 교회표어: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3:14)
- ◎ **전교인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가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일시: 2013.12.31(화) ~ 2014.1.2(목) 회비: 10불(1인)  
장소: Hunua Falls 크리스천 캠프 (예약 완료, 교회에서 1시간 거리)  
송구영신 예배와 새해맞이 전교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각 공동체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선교보고예배:** 다음 주일은 바누아투 선교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 ◎ **선교대회:** 남태평양 선교대회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기간: 2013년 7월 22일(월)~25일(금) 장소: 주님의 교회  
강사: 김의식 목사(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담임)
- ◎ **수요예배:** 이번 주 수요예배는 선교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장소: 주님의 교회 시간: 7시 30분 설교: 김의식 목사
- ◎ **기도:** 성전 건물 구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모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 ◎ **임직자:** 장로장립- 고성일, 박덕철, 박병민 집사안수- 경덕현, 김철재, 최광암  
권사안수- 김봉희, 박혜숙, 정혜숙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7월 새벽 기도회 본문

- 1일: 행 10:1~16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 시간
- 5일: 행 11:19~30 환난으로 열린 섬김의 기회
- 12일: 행 14:1~18 사라지지 않는 복음의 능력
- 19일: 행 16:33~40 세상 권세에 굴하지 않는 복음의 당당함
- 26일: 행 19:1~10 유일한 복음은 온전하게 가르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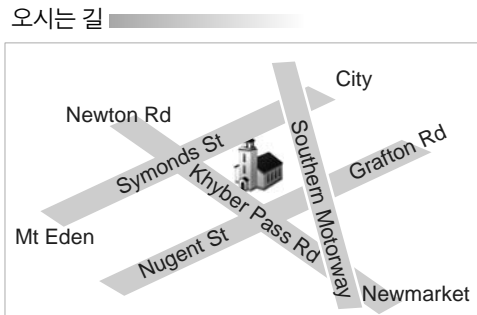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중국: 김강한목사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밀알장애우 봉사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2013년 7월 21일

15권 29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



2013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 3:14)

바누아투행 기내에서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진다. 다들 기도하는 마음일까? 이제껏 살면서 출장, 여행, 친지 방문, 심지어 이민까지 술한 이유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이번 여행의 목적은 나에겐 너무나 생소하다. 바누아투 입국신고서를 쓰면서도 방문목적란에 뭐라 써야 할지 고민하다가 Other란에 tick 하면서 Mission trip은 Other란에 해당하는구나 생각을 했다.

‘선교는 다른 여행처럼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라는 생각에 동행한 학생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 벌써 이 Other란에 tick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다.

여행의 즐거움 하면 보통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사는 즐거움이 있다. 한국에 한번 다녀올 때도 어딜 가고, 뭘 먹고, 뭘 사야지 생각으로 비행기를 탔던 마음이 기억난다. 이번에는 분명 이런 즐거움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비행기를 탔던 어떤 순간보다도 설렌다. 무엇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먼저 떠난 선발대일까? 그 마을 주민들일까?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다. 먼저 간 아내와 아들이 아닌, 그냥 그들이 속한 선발대가 우릴 기다린다는 생각, 그들도 내가 아니라 우리 팀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왜일까?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한가지 목적으로 벌써 하나가 되었던 거다. 두 달 동안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준비해왔다. 이것을 우리는 함께 사역하며 나눌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나를 설레게 한다.

두 달 전만 해도, 선교를 간다는 것을 생각도 안 했던 내가, 조카가 “선교 갈까요?” 물어봤을 때, “응. 잘 갔다 와. 너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라고 답했던 내가, 선교를 함께 가기로 결심하고 아내와 아들까지 합류하게 된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정말 상전벽해와 같은 엄청난 변화다. 나 자신도 인정하기 싫은 변화가 나한테 나타난 거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의 더욱 변화된 나를 기대하며 나는 지금 너무 감사하다.

주님 제게 이런 기회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동호 집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뉴질랜드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 - 369-5077 Ph: 09-475-6312 PO Box 8298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106:47-48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36장	다함께
※ 성서교독	62. 시편 143편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69장	다함께
대표기도		임혜자 권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16:35~40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이태한 목사
찬송	445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다함께
※ 축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 주일2부예배 (15:00)

인도: 심창진 목사  
찬양 / 박찬준 형제  
기도 / 조주찬 형제  
성경봉독 / 행 17:16~23  
설교 / 알지 못하는 신에게 / 심창진 목사  
찬송 / 주님은 산 같아서  
헌금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축도 / 심창진 목사

## 수요일예배 (19:30)

남태평양 선교대회  
연합예배

### ◎ 7월 교회알지

단기선교:  
7월 3일(수) ~ 12일(금)  
창립주일:  
7월 14일(주일)  
임직예배:  
7월 14일(주일)  
선교 수요일:  
7월 24일(수)

### ◎ 7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최득수/오지영  
새신자 안내:  
김수원/최희숙  
주차안내:  
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  
양윤주/박제란

###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기도: 연합예배  
다음 주일 1부: 현석호 장로  
다음 주일 2부: 박해숙 권사  
7월 31일 수요일기도: 김영옥 권사  
7월 31일 애찬기도: 최충일 집사  
8월 4일 1부: 고성일 장로  
8월 4일 2부: 권준현 형제

## 세월

올해 초 해가 바뀐 지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벽걸이 달력은 얼지 못하고 떼어낸 달력이 아쉬워 뒤적이고 있었다. 세계 명화가 그려진 그것도 크기도 적당하고 숫자도 잘 보이고, 그리고 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한번 쓰고 버리기엔 아깝다 생각했는데, 재미있는 것을 알아냈다. 올 일월과 똑 같은 작년 오월을 찾아냈다. 5자를 1자로 고쳐서 걸었다. 날짜도 요일도 똑같다. 그뿐 아니고 지나간 5월은 작년의 1월과 같고, 또 지금의 7월은 작년의 10월과 같다. 다만 내가 지금 7월로 쓰고 있는 작년 10월 달력은 그때 있었던 일들이 갯벌에 찍힌 멧새들의 발자국처럼 어수선하다. 그 메모들이 꼬물꼬물 살아나 그때를 생각나게 한다.

사람마다 같은 숫자의 달력을 보며 살아도 각기 다른 삶을 경영하고 있다. 웃기도 하고 때론 울기도 한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한다. 같은 7월을 살면서도 어떤 이는 어느 날을 기다리고 다른 이는 그날이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도 한다. 세상의 끝인 것 같던 시련도 멧새들의 발자국처럼 시간이라는 썰물이 안고 가는 것을……

성경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5) 하신다. 어떻게 사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를 아직도 모르고 사는 나는, 젊어서는 세월은 그냥 지나가는 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월은 나까지 뭉뚱그려 함께 데려가고 있다. 바로 등 뒤에 따라오는 것 같던 건강도 젊음도 지나온 시간 저만큼에서 나를 어려워가라 손 사래질 치는듯하다. 돌이켜 보면 내세울 것 별로 없는 삶과 산 것보다 훨씬 적게 남은 시간 사이에서 때론 조급하고 당혹스럽기 까지 하면서도, 이럴 땐 그냥, 그냥 따끈한 차 한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추적추적 내리는 뉴질랜드의 겨울비를 무심한 듯 바라보며 속내를 감춘다.

세월을 아끼라 하심은 아마도 주님을 닮은, 보시기에 미쁜 삶을 살라는 말씀 아닐까? 때 없이 내리는 비로 파란 이끼가 끼어 물비린내 풍기는 뒤뜰 마루 밑으로 다소곳이 숙인 흰 부추 꽃위로 또 앙상한 플라타너스 가지들 사이로 그렇게 비 오는 6월을 보내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또 작년 달력을 뒤적여 돌아온 7월과 같은 달을 찾아 세월의 벽에 걸고 있다.

- 이경자 권사

